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나

(시편 119:169-176)

Straying like a lost sheep

(Psalm 119:169-176)

시인은 자신의 헌신이 자기 의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듭 주장합니다. 본문의 175절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Although the psalmist doesn't consider himself righteous through all his devotion to God's law, he repeatedly insists on obeying God's word. The psalmist wants to obey, so that he might live to bring praise to God. V. 175 reminds us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which states that "man's chief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1. 의인이고 죄인이다

시인은 자신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있다는 것입니다.

1. Both justified and sinner

The psalmist says that he himself was a lost sheep. The fact that he is surrounded by his enemies means that "he needs God's help."

마틴 루터는 176절을 두고 매우 감정적이고 눈물이 가득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찾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In these verses, he says is that he is lost outside of God's grace.

Martin Luther explained that v. 176 was an emotional phrase, full of tears. The psalmist cries out, because he does not want to remain lost. We should pray that we will be sought out by the real shepherd, Jesus Christ.

2. 시인의 슬픈 처지

다윗은 시편 23:1에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했습니다. 쉴 곳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인도, 안전, 위로, 보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아닐 경우 자신에게 5가지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2. The psalmist's sorrowful situation

King David said in Psalm 23: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This meant that the Lord would provide a place to rest, a place of life, guidance, security, solace, and supply. However, in this passage, the psalmist says that he will be lacking in five domains, if God will not be his shepherd.

- ① 깨달음
- ② 구원
- ③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능력
- ④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 (1) understanding
- (2) salvation
- (3) the ability to worship God rightly
- (4) the power to live an honest life
- (5) the power not to yield at the end

⑤ 끝까지 굴하지 않는 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Conclusion

시인은 자신을 잃은 양으로 묘사하며 이해, 구원, 바른 예배, 정직한 삶, 견인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지만 자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며 죄가 있어도, 심지어 종으로 합당하지 못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The psalmist describes himself as a lost sheep, and confesses that he needs understanding, salvation, right worship, and an honest life. Although he cannot seek God on his own, he is nevertheless a servant unto the Lord.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보호하십니다.

Although he is weak, sinful, and even unsuitable as a servant, God is still able to use him. Even though we cannot keep His commands, God never forgets us, but keeps us and protects us by His grace.

연약하고 죄 많고, 우리들처럼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찾을 때까지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눅 15:3-7). 목자에게서 잃은 바 된 양은 전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What does a shepherd do with sheep who are weak, sinful, and needy like us? When a shepherd loses a sheep, he goes after it until he finds it (Luke 15:3-7). Just as a lost sheep cannot do anything apart from the shepherd, all of us in Jesus Christ are only able to do anything through the Lord who gives us strength. By keeping the Lord's commands and praising Him in His embrace each day,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come a faithful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9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오늘 각 교회학교 별로 / 본선 - 23일(금) 오후 7시 602호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암송대회를 열어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는 '로마서1-5장'을 본문으로 오늘 부서별 예선을 거쳐 오는 금요일 본선을 치른다. 오늘 실시되는 부서별 예선은 각 부서의 형편에 맞게 진행하되 부서별로 각 2-3명씩 선발하고, 유아부와 유치부는 특별참가 한다.

성경암송대회 본선은 10월 23일(금) 오후 7시 602호, 603, 609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하여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을 선발하여 10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하고, 성도들 앞에서 암송 한다.

성경암송대회 채점은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정확도(70): 전체

성경구절을 완전히 암송(한번수정허용)하는 경우 70점, 2회 수정 시부터는 1회수정시마다 1점 감점, 틀리면 2점 감점, 빼먹는 경우는 분량 따라 감점한다.

· 태도(20): 자세는 청중을 골고루 바라보아야 하며, 말씀에 따른 몸짓이 성숙화되어 단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모습의 정도에 따라 평가함(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

· 반응도(10): 회중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들리지며, 호응은 어떤가에 따라 평가함(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성경암송대회 심사위원은 교육1국/ 김광신 장로, 정병무 장로, 임훈규 장로, 교육2-5국/ 하영수 장로, 이영기 장로, 황 광 목사 영어부/ 노문환 장로, 이갑진 장로, 조슈아 조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2010년 교회 봉사 지원서 제출 10월 28일(수)까지 사무국으로

2009년 4/4분기를 시작한지 3주째가 지나는 이즈음 우리교회는 내년 교회의 모든 살림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교회 각 봉사부서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보 삼지로 배부된 2010년 교회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교회는 성도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각 부서 운영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원서 작성요령은 먼저 지원서 상단의 본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특히 동명이인 구별을 위해 교적번호나 본인 이름 뒤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 예: 이아무개1 김아무개2 등) 두 번째, 현재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 부서와 봉사연한을 기재한다. 이번에 처음 봉사신청을 하는 성도들은 2010년도 처음 봉사 신청자란에 ☆(별표)한다. 세 번째, 내년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 중 1지망에 O표 2지망에 △표를 한 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2010년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품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지원을 하여 각 부서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시길 기도한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칼빈탄생5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10월24일(토) 오전 10시 본당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주최하는 칼빈탄생5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10월24일(토) 오전 10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21세기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신학적 과제'로 300여 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주의 성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3-24)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Ephesians 4:23-24 [NIV])

부목사 및 호산나 대학 교목(겸 사감) 부임

부목사 - 유문건 목사 / 호산나 대학 교목(겸 사감) - 구희숙 목사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역할 교역자를 모시기 위한 청빙 면접을 지난 10월8일(목) 이종윤, 박노철 목사 김광신, 노문환, 김대호, 김영준, 하영수, 임상현 장로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두 분 목사를 서울교회

부목사와 호산나 대학 교목(겸 사감)으로 각각 모시게 되었다.

이번에 모신 두 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목회에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한다.



유문건 목사(72년생) : 부목사

- 연세대 신학과(B.A),
- 장신대 신대원(M. Div., Th.M)
-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원(Th.M) 졸업
- 포항북부교회와 호주 멜본한인교회 부목사로 사역
- 김안성 사모(장신대 신대원, 프린스턴신대원 Th.M)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구희숙 목사(66년생) :

호산나 대학 교목 겸 사감

-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B.A)
- 장신대 신대원(M. Div)
-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수료

2009 사명자대회 기도의 불길 이어져

- 24시간 기도장소 - 1층 웨스트민스터 홀
-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 열열이기도(다니엘 기도)

지난 10월5일(월) 0시를 기해 시작된 2009년 사명자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본인이 맡은 시간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를 맡아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성도들은 열열이기도(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여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한마음 한

뜻으로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전도대는 70인전도대를 중심으로 이웃의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다.

활활 타오르는 2009 사명자대회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게 우리 모두 참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영광 돌리기 바란다.

화요 정오 음악회



10월 20일(화) 정오 - 손귀호 오르간 독주회(장신대 청빙교수, 안산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박사과정 졸업(Ever Hilty Scholarship 전 장학생)
장로회 신학대학교, University of Colorado 오르간 강사 역임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초빙교수, 안산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

아가페타운 오픈 감사예배

한 뜻으로 한결같이



“문들이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시편 24:7)

2009년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되고, 이종운 목사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기도를 올린 후 테이프 커팅과 함께 아가페 타운 시대의 막이 열렸다.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열렬히 기도한 것이 눈 앞에 펼쳐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우리교회는 빈약한 자 구제를 교회의 3대 목표의 하나로 세우고 탈북난민 보호 UN청원운동, 기독교 교도소 설립 등 소의 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사역을 하였고, 2005년 헌당 직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학과 노인 복지 시설을 수용할 타운 건립의 구체적인 비전을 품으며 2006년, 호산나 학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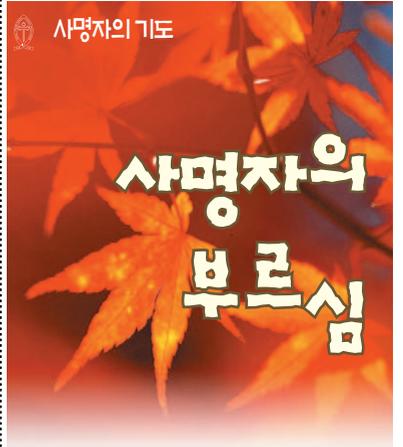
테이프가 커팅된 후 참석자들은 평화의 집을 둘러보고 호산나 대학이 사용할 사랑의 집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새겨진 교환비 제막식을 가진 후 자유의 집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 순서를 맡으신 이광순 장신대 전 총장은 ‘범사에 감사하려면’이라는 제하로 “우리는 모두 핑계할 것이 없는 피조물이다. 오직 빛을 따라 가면 감사할 일만 있고, 기도하면 근심거리도 감사의 제목으

로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어 오픈 행사에서 오정수 장로님은 그간의 건축 경과 보고를 하며 부지를 매입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밀한 손길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날 축사를하신 손인웅 목사님(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의회 대표회장, 덕수교회 담임)께서는 세계 최초로 발달장애인 대학을 설립한 서울교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겸비된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종운 목사님을 앞세우고 한 뜻으로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훌륭한 서울교회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축복하셨다.

저 푸르른 한강수 유유히 흐르고 청우산 언덕이 늠름히 둘러선 이 곳 아가페 타운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마음껏 그 뜻을 펼치고, 인생의 황혼에서 주님의 섬기던 이들이 이 땅의 수고를 마치며 천국을 바라보는 평화의 땅이 되기를...

허숙 권사(편집부)



이은희 권사(제1권사회장)

나의 사랑하는 주님,
다시 돌아온 이 가을에 자연은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께 경배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영글었어야 할
나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기도의 전은 너무나 가볍고
나의 사랑의 그릇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해
보입니다.

주님 뜻대로 섬겼을까? 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더욱 숙여집니다.

이런 나를 다시 한번
다독이시는 주님께서
아직도 남은 기회가 있다고
이 사명자를 부르심은
아직도 너와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그 인애하심과 용납하심에 기대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나의 마음을 쏟아 부으려
이 시간 당신께 나아옵니다.

잠 못 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시는
피멍드는 어미의 눈물로
한 영혼을 보듬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무게가
사명자라는 귀한 이름에 덧입혀 지기에
나도 이제 섬기길 원합니다.
그저 섬기길 원합니다.



- ① 아가페 타운 테이프 커팅
- ② 목자중창단의 헌금송
- ③ 호산나 대학 교환비 제막
- ④ 아가페타운 내부를 둘러보며
- ⑤ 감사예배 전경



선교사 교육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허창범, 현미순 선교사
(일본 파송예정)



저희 부부가 일본에서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서울교회의 선교사 선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응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선발되고 선교사교육을 받은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가슴이 띠고 마음으로 밀려오는 벽참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배를 드릴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느끼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몸은 피곤하였으나 한국의 훌륭한 서울교회에서 믿음의 지경과 신앙의 깊이와 지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선교하며 약한 자를 돕는 복음의 길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회철학과 뚜렷한 비전과 개인의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렴함의 삶은 저의 삶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서울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교회임을 느꼈습니다. 아가페타운을 건설하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한국에 있음을 일본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회에서 파송 받음이 영광이며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4:6-7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교회 주관 -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

서울교회 주관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지난 10월16일(금) 오후 2시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학현관에서 열렸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장교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진중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였다.

이 날 세례식에는 교육훈련단에서 425명 참석하였으며 그 중 해병 신병, 1101기, 1102기, 부사관 후보생 320기, 해병신병 32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이갑진 장로)와 당회원, 비전2020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드린다. 주일 아침 첫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가브리엘 찬양대는 합창으로써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소리와 좋은 발성 그리고 균형미 갖춘 앙상블을 통하여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늘 특별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 P. Prentiss)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 김정희 권사, 오르간 강민정 집사, 피아노 백송희 집사, 바이올린 박찬호, 김규현, 팀파니에 윤주일 성도가 수고한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20일(화) 故 임옥 목사 10주년 추모예배 및 동상 제막식 예배 설교를 한다. 22일(목) 한국 로잔 월레모임을 소집한다. 24일(토) 한국복음주의신학회 54차 정기논문발표회개회예배 설교를 한다.
- 승진: 정완진 집사(15교구) - 한국총합계피플 대표이사
- 김성호 성도(12교구 김광신 장로 이인선 권사 장남)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 시험 합격
- 수상: 전광영 집사(15교구) 10월17일(토)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미술 부문 대통령상 수상
- 전시회: 이준석 성도(12교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5주년 기념 야외 조각프로젝트 <광장유회>전, 2009.9.5-11.1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분수광장
- 이사: 박찬우 성도 정희진 집사(7교구) 서대문구 냉천동 서대문 센트럴 빌 202동 901호
김영희1 집사 이현정1 집사(5교구) 서초구 반포2동 레이안 퍼스티지@105-101
- 개업: 마운틴 하드웨어 (2교구)이민희 집사, 신산사 권사 논현동 128-11 (T. 516-5566)
- 개원: 퀸스톤 성형외과 (1교구) 박지윤 집사 강북구 번1동 418-3호 성내오인텔리안 301호(T. 990-4648)
- 주간식당 봉사: 바울선교회(10.18) 엘리야남선교회(10.25)
- 금주의 식사: 이양철 집사 김미향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 주일예배 | I부 | 오전 9시 |
| | II부 |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 수요일예배 | I부 | 오전 11시 |
| | II부 |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30분 |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2009 사명자대회 통해 받은 사명을 확인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